

2017년 10/23 (월)

TO.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저번주 토요일에
짱이라는 동아리에서 솔티에떡에 여행을
간 김진호 입니다. 멘토님께서 떡을

40년 동안 만드셨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솔티에떡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궁금했는데 이 마을이 솔티 마을
이어서 지은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에
질문에 힘들게 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고 많은 배움을 깨달은 여행인 것
같습니다. 또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7년 10월 23일 (월)

-진호 올림-

2017. 10. 23. 월요일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송호진입니다. 전에 떡 만드는 과정과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깝게 질문을 못하였습니다.

떡을 만드는데 40년 동안 해서 어려운 점, 기쁜 점, 힘들었던
점을 말해주었는데 그걸 꼭 참고 떡을 만들어서 저도 한번
떡집 사장을 해볼까나라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솔티애떡이라고 가게 이름을 정했는데 가게 이름이
자게 마을 이름이 솔티 마을 이어서 '애'자는 사랑 애할
때 '애'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에 체크할까요?
니다. 감사 합니다. 2017년 10월 23일(월)

송호진 올림

- 호진 ~
대가리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토요일에 슬리에떡
에서 멘토님을 보았죠, 멘토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
을 듣고 어떻게 떡 만드는 맛을 하시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1문 1답할 때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멘토님
께서는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라고 하셨죠 저에게는
정말 답은 잘해주고 계시네 라고 생각 했어요
그리고 떡 진짜 맛있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알고 싶네요 ㄱㄱ 멘토님께서도 떡하시는
데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같은건 떡려서
맛은 좀 더듬엇을 텐데 4~5시에 익어났으면
되게 힘들엇을 텐데 그것을 이겨내고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해서 아쉽
죠 지금 하는 일도 충분히 잘해내고 있으니 저희도
힘들어 하시지 마세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파이어 ~ ~ 그럼 안녕히 계세요 ~



오모새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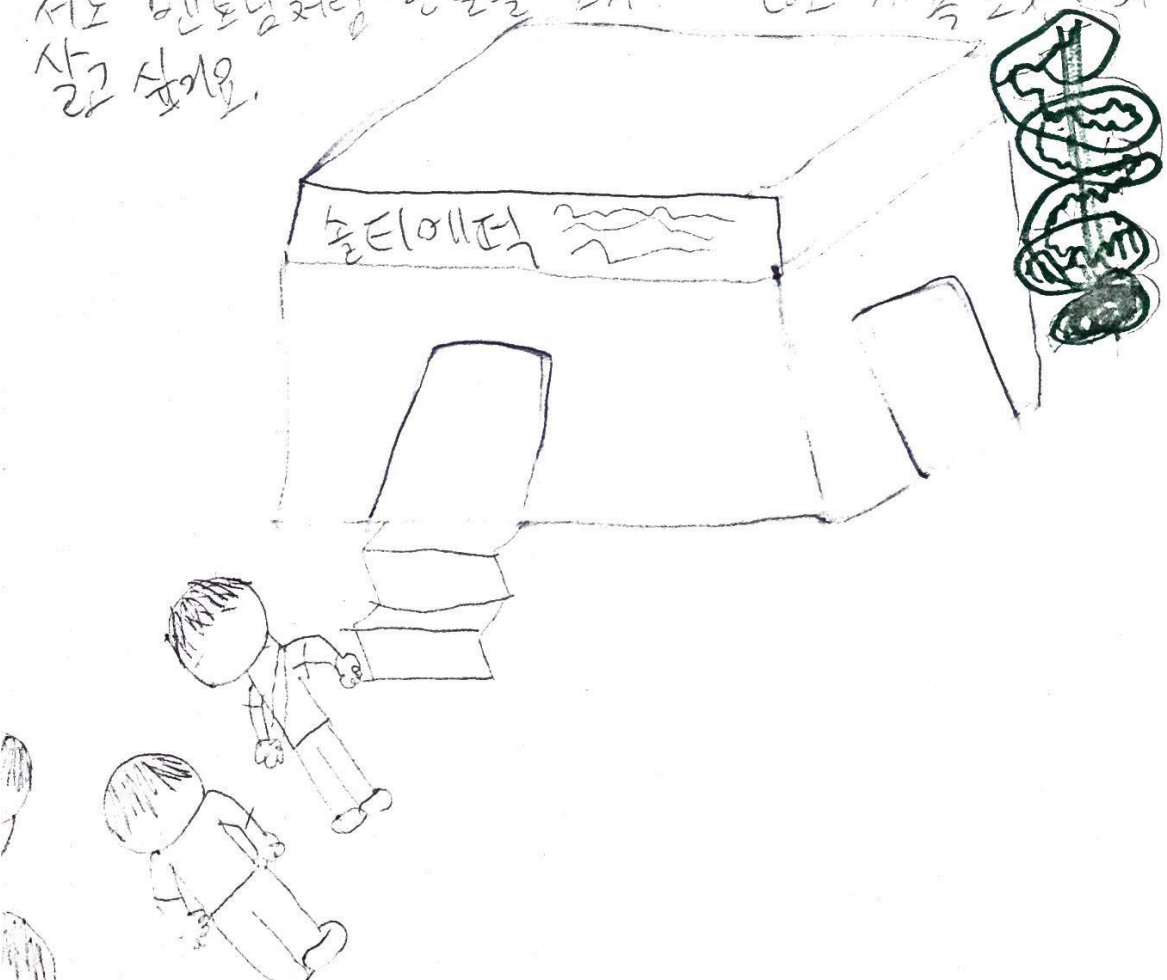
2017/10/29 지영울림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육상재능 김상준이에요
저는 10월 21일날 솔티마을에 장애이력을 ~~늘드~~ 갔어요 그래서
멘토님을 만나뵙게 되었어요 저는 멘토님에게서
40여년동안 편을 만들어 지나왔다는 것을 듣고 신기했어요
저는 한 일을 하던만 해도 엄청 힘들어서 포기를 해버릴 것 같은데
40여년간 그시에 일어나셔서 늦게까지 편을 만들고 파시는 모습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편을 만들는데 사물을 많이 소비한다 시비가 라면
저는 몹시 후회가 될 것이라곤 저는 생각하는데 멘토님께서서는
후회는 별로 안하시냐고 하시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티에서 정말 많이 알았어요,
저도 멘토님처럼 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디어 인생을
살고 싶어요.



2017년 10월 23일 (월)

멘토님께 ♪

안녕하세요, 저는 해서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시대회가 있어서 참석하느라
멘토님을 뵙지 못하네요 😞

많이 아쉽고 뵙지 못한것이 너무 죄송하기
만 멘토님이 좋은 분이실 것 같아요. (*~*)

저는 못갚지만 다른 쌤들에게 좋은 말
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끼 즐거웠
다고 들었어요. 못갚지만 즐겁고 재미있
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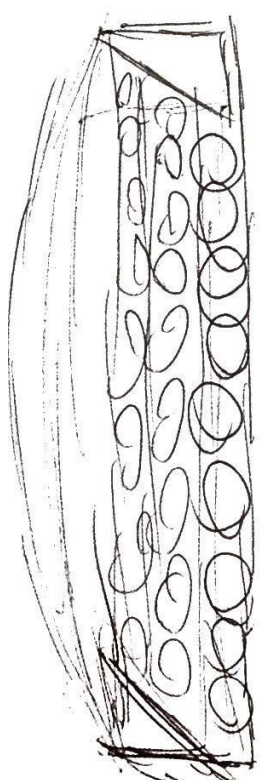
안녕히 계세요. <해서련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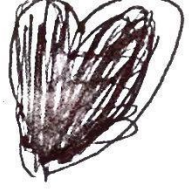
2017년 10월 23일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 북상욱 입니다. 저번 여행에서 멘토님께서 떡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떡을 40년 동안 만들고 연구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떡을 만드셔서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여행사가 만나서 일한 것도 대단합니다. 만약 저였다면 떡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일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멘토님을 떡을 위해 노력한 것을 보니까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만든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장** 멤버 김가현이, 그리고 하니, 제번주 토요일 즉 10월 21일에 만드님이 하시길 원하고 슬티에다 집에서 1분 1남은 할 때 저는 **할** 하고 싶은 거는 있어 지만 **마상** 할려고

그러니까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저는 친한 사람들 앞에서 말 하는 거는 자신 이 있는 데 약간 긴장 큰 느낌 앞 에 서는 약간 떨린다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 밥을 안먹어서 사실 배가 고파는 데 떡을 주셔서 감사

했습니다. 그리고 슬티에 떡집에서 떡 먹으려고 할 때 떡이 완전 맛있어요, 앞으로 **도** 인기 있는 떡집이 되기

원해요. (맛있는 떡집이 인기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럼 **진장** **안녕** 하세요!

초기

2017년 10월 23일(월)

고

— 장 멤버 김가현 올림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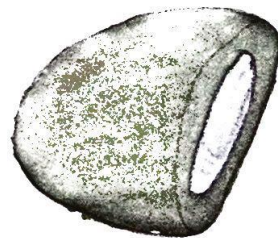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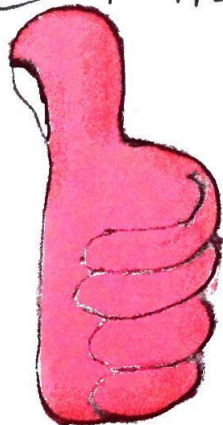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은우예요.

40년동안 멘토님께서 떡을 지으셨으니 그 흐름

덕분에 이 떡이 더욱 맛있었던것 같아요.

언제다시가서 떡 많이 사갈게요. 멘토님 그때
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저는 떡을 엄청 좋아
하는데 팥이나콩이 들어가있는 떡을 안 좋아
하는데 멘토님께서 만드신 떡은 콩이 들어가도
팥이 들어가도 저는 다 먹을것 같아요. 1000세 까지
팔팔하시어서 떡계속 ~ 만들어주세요. 멘토
님 떡이 최고예요 맛있어서요. 그럼 떡계속
만드시고 팔팔하세요.



← 모시떡

2017.10/23

멘토님 떡을 사랑하는 박은우 올림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속티어떡으로 들뜬 마음을 이끌고 여행 간

김상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뭘 하든 한 우물만

계속 판다면 이렇게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다. 앞으로 좋은 떡 많이 만드시고 새로운 떡

도 만들고 많이 팔아서 전국에 속티어떡을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처음 보 얼굴을 보고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도 친절히 해주시고 맛있는 떡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친구들 또한 정말 맛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음에도 들러일이 생기면 떡 한번 사서 돌아갈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귀찮게 물어보기만 하고 떡만

먹고 떡은 사지도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또 대표님처럼 저도 한 블야에서 전부가

되어 대표님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저는 대표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였으니 안녕히 계세요. 감사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되자

2017.10.23



To. 멘토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짱'이라는 동아리에서 떡(술덕에떡)에 다녀왔었던
장지혜라고 합니다. 멘토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슬펐지만, 한그건으로는
노력의 힘을 전파하는 에세지 같았습니다. 어린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지를 보여드려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떡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하는 커녕 노력해야 한다는
멘토님의 말씀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도 멘토님처럼 노력해서 꿈을 이루겠습
니다. 비로 멘토님처럼 노력하는 못하게 지만 한수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짱'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든가 후회없이 꼭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하시고,
'한수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일이든 해낼수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께서
40년동안 떡을 만들어서 그런지 떡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추억 쌓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2017. 10. 24
장지혜 문림.

김원철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대표라고 합니다. 제하 대표님을 처음 뵈었을때 되게 친절하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질문응답 시간을 가졌을때 친절하시더라고요!
떡을 중간에 주셨을때 배고팠지만 눈치가 보여서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반히 먹이라고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엄청 많이 먹었더니 점심밥을 먹지 못했어요.
질문 응답시간에 가장 먼저 질문한게 저예요? 제가 떡을 만드시며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냐고 물어봐 주신 보았는데 새벽에 우거운길 들어서 일하시는게 합드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족과 떨어져 ~~살~~ 사는 것이 힘드셨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합드셨어요? 저 같은 가족들이 너무 보고싶어서 눈물도 나고 일에 집중을 못할것같은데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6시 내고향'에 나오셨을때 기분이 어땠는지도 여쭙어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1문1답이라서 그 답을 듣지 못했어요. 떡이 맛있는 비결도 궁금해요!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서 이것저것 다 궁금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질문하면 쪽팔려서 잘 못했는데 왜 예뻐하니 쫓그누는 인상이 되지 않았어요!
저도 멘토님처럼 훌륭한 분이 되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2019. 10/24

솔티에떡

-광주광역시 대표님-

2017년 10월 24일 토요일

김동철 멘토님께

공주 장 멤버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전 토요일에 다녀왔던 강민성 님이,
 멘토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똬를 만드시는 분이 어떤 과정을 겪을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멘토님의 소개를 들을 때 5월제가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서 똬를 똬 기대를 하셨을 때가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극복한 멘토님한테 많은 것을 느꼈어요.
 사랑은 자신이 타자 라는 마음이 있어야 어떤 일이든 태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지막에 제가 똬를 타려고 했는데 끝나 버려서 아쉬웠어요. 저의 똬는 이 어려운 상황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했어요. 똬를 듣지 못 했지만 그래도 멘토님이 생각하신 것을 따를 수 있었어요.
 멘토님과 멘토님도가 끝나고 똬를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40년 기을 만들다 보니 소래주가 여사들끼리
 많이신 것 같았어요. 똬를 먹고 짐삼을 만든 뒤에 똬 산에 있는 수 많은 청동부궤어 마음에 들었어요.
 수 많은 청동부궤어 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갈 때 짐삼이 동장도 보냈어
 써왔어요. 기뻐가 있던 다음에 또 똬를 할게요. 그럼 안녕히가세요.

공주 장 멤버 김동철

김용철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멘토열도에 참석하지 못한
함평 짱을 양다현입니다. 제가 일정 틈에 멘
토님을 뵈러 가지 못했어요. 아쉽기도 하고 가보고
싶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떡떡콩덩콩과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0년 동안 떡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가요. 그이유가
저희 할머니도 떡집을 하시는데 힘든 모습을 보시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포장도 해보고 그랬어요. 항상 열
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계속 떡 만드는 일 열
심히 하세요 ♡

멘토님께!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세상으가꾸는짱

김소희입니다 저희가 멘토님께!

멘토연토 시간에 질문을 하었는데 그것이
답을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는그래서
멘토님이 대해너적악게 죄송합니다~~

해신떡드귀사서 감사합니다~
다음기포찾아 보겠습니다. 안녕히가게

하~

2017년 10월 23일

세상으가꾸는짱
김소희영

안녕하세요, 김용철멘토님!

저는 '세상을 가꾸는 짱'의 전국대표 정예운이라
합니다. 아쉽게도 저번 공정여행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봉사활동을 가야하기 때문이었어요.ㅠㅠ
서운하지않으시죠? ㅎㅎ

저도 딱 완전 좋아해서 가고 싶었지만... 너무 아쉬워요
대신 친구에게 전해듣기만 했어요.

'솔티애티'를 듣고 이름이 이쁘고 관심이 갔는데
뜻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뜻을 알고 나니 마음에 감동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힘들을 버틸수 있었던게 고영과 어머니라고 해서 그래요!
덕분에 제가 힘들때 버텨야하는 이유가 하나더 늘었어요.

나중에는 꼭! 찾아가겠습니다.

20171024화

-세상을 가꾸는 짱대표 정예운 올림-

김영철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김영철 멘토님.

저는 10월 리얼에 멘토님께 찾아갔던 자생의
임지홍입니다. 처음에는 왜 떡볶이를 찾아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멘토님이 떡볶이
만들게 된 이유와 어떻게 정육에서 형제들이
모이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듣고 나니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만드는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만드는 것

행복했던 적과 힘들었던 것 같은 것들을
다시 보니 떡볶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2017년 10월 24일 (화)

임지홍 올림

멘토님께 쓰는 편지

안녕하세요.

멘토님 이번에 돌타에떡까지 가서

걱정 줄았어요!

저는 이번에 광에서 처음 여행은

가 왔는데 첫 여행이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떡도 아주 맛있었어요

저는 연을 사았는데 떡은 쌀길 그랬나봐요.

현보다는 떡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가족들이랑 같이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2017. 10. 24-

-보경이가-

김봉철 대표님께 ♥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항공장애 김희영이에요
 요즘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이런날씨에 떡 만드시느라
 수고하십니다ㅠㅠ 그때 먹었을때 너무 맛있었어요
 원래 떡을 별로 안 좋아 하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가족 가져다주었는데 너무 다 좋아하시니 제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대단하신거 같아요 ㅠㅠ
 40년동안 하셨다니 저는 실증을 잘내는 편이라 무슨일은
 도래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그때
 너무 떡 만드시다보니 팔은 붓물리고 아프시다 했을거
 관련있으세요?? 킹대세요 나중에 저임플을 가는일이
 생기기전 손피에 떡을 꼭 뜯리고 싶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이거진 10월24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 드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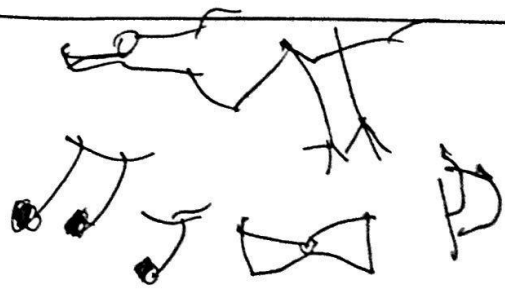
- 1. 멘토님 안녕하세요 나까
- 2. 저를 세 생일과 관련된 ^{공통} 대타표도 김 태현입니다
- 3. 이번이 제일 이익이여 행세와 가지지 않았습 나다-
- 4. 그내용에 대해선 정말 죄송합니다
- 5. 더의 내용에 대해 할말이 없구요

앞에 그 2년은 건
지금 심정 들 그 말도 못하
고 있습니다



멘토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럴수있게 도와줄텐데 말이죠
아름이 수이네요 레글서가 있기에 주시다면
죄송합니다.ㅠㅠ

슬피 애덕 번창하시어
점점게 오라오라
추기시기로



2017년 10월 24일 김태현 드림

김용환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김용환 멘토님

저 저번 토요일에 갔던 김형욱 여사

멘토님께 가서 편지님이 해준 멘토링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감동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아무리 생각

해도 과실이 없고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 다음에 또 보죠.

정 김형욱 올림

2017. 10. 24. 화요일

멘토님께

10.27

date 20 . .

안녕하세요 멘토님, 저는 무안짱 김민희입니다.

멘토님과 좋은시간 보내게 되어서 좋아합니다

다음에도 좋은시간 보내면 좋을것 같아요.

멘토님은 정말 힘든 상황에 이_{MM}악_{MM}계지만

그렇게 노력하셔서 이상황까지 오게 되신게
정말 놀라워요!

시간되면 한번더 찾아볼게요. ><

감사합니다 ~